

Card 目錄作成에 있어서 基線(Indention) 設定을 爲한 試圖

金 南 碩*

目 次	
I. 緒 論	1. “Space”單位에 依한
II. 基線의 意義	2. “Cm”單位에 依한
1. 基線의 語源	3. 獨立된 記載方法에 依한
2. 基線의 重要性	4. 活字와 基線
III. 基線의 種類와 그 比較	V. 東洋書目錄을 爲한 基線의 試案
1. 基線의 名稱	1. 流動式 基線의 設定
2. 基線의 基準	2. 固定式 基線의 設定
IV. 基線과 請求番號와의 關係	VI. 結 論

I. 緒 論

科學을 利用한 圖書檢索의 時代的인 發展은 圖書目錄의 機械化를 不可避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諸 與件에 對한 發展은 아직도 韓國的인 立場에서 그 實現이 요원하다고 하겠으나 언젠가는 實現되어야 할 命題란 것도 明白하다. 앞으로 다가올 目錄의 機械化에 對備해서 現在 使用되고 있는 記述目錄의 一環인 基線(Indention)에 對한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本 論文은 基線에 關한 理論的인 根據과 現在 使用過程에서의 問題點을 把握하여 韓國的인 特性과 機械化에 對치할 基線의 設定에 기여코자 한다.

圖書의 Card式 目錄에서 적은 공간의 效率的인 活用方案에 對한 하나의

* 啓明大學校 圖書館長

2 도서관학논집

모색이 目錄規則과 記述目錄規則이고 보면, 이러한 諸規則에 依해서 閱覽者들에게 보다 効果있고 一貫性있는 形式에 依해서 直接 冊을 接하지 않고도 願하는 必要한 情報을 把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各事項의 記載의 始作에서 부터 계속 事項等 諸事項의 識別을 爲한 効果的인 空間處理인 基線의 問題는 目錄者들과 이를 利用하는 閱覽者들에게 公히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問題의 題起를 通한 統一性있는 方法과 東洋語(韓國, 中國, 日本)의 文字的인 特殊與件에 맞는 試案의 모색은 記述目錄의 一環으로 情報檢索을 爲한 하나의 價値있는 空間處理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重要視 되고 있는 基線(Indention)이 圖書館이나 學者들에 依해서 各各 다르게 表示되어 왔으며 言語的이고 地域的인 與件에 考慮됨이 없이 西洋의 것을 또는 西歐의 어느 하나의 圖書館 樣式이나 學者의 것을 그대로 採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各 圖書館에서도 또는 한 地域에서도 이 基線(Indention)에 對한 統一性이 考慮되지 않고 있다. 特히 學校圖書館이나 中小의 圖書館에서는 아무런 關心없이 찍어내는 用品商의 印刷된 基線(Indention)에 의존하고 있는 實情이다. 本論文은 이와같이 關心없이 쓰여지고 있는 目錄의 基線에 對한 重要性을 認識시키고 基線에 對한 根源을 찾아 問題點을 提示하여 우리文字에 맞는 基線(Indention) 設定을 期하므로써 基線(Indention)을 通한 目錄의 統一에 기여코자 한다.

本論에서는 이를 爲해 다음과 같은 目的을 設定하였다.

- ① 基線의 理論的인 背景을 語源으로 부터 推出하고 카아트스에서 가지는 基線의 必要性을 알아보며
- ② 지금 使用되고 있는 基線의 種類와 그 名稱에 對하여 調査해 보고
- ③ 目錄에 採記되는 各事項과 基線과의 關係에 依한 問題를 發見하여
- ④ 韓國的인 與件에 맞는 基線의 設定을 위하여 理論的인 根據와 이의 試案을 提示해 보코자 한다.

끝으로 添加 해 두고 싶은 것은 本論文에 關係되는 先行研究가 國內에서는 없었고 外國의 文獻調査에서도 發見할 수가 없어 研究의 方向設定에 에

로가 있었다.

本 研究에 이어 앞으로 우리 圖書館界는 圖書檢索의 機械化에 대처할 보다 專門的인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I, 基線의 意義*

1. 基線의 語源

基線은 英語 Indention에 대한 通用되는 우리말 對譯語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말의 意味體系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여 筆者 任意로 採用한 用語이다. 따라서 語源은 英語 Indention을 中心해서 찾아 보았다. Indention은 Indentation과 同一한 意味로 쓰여지고 있다. Indention은 M. E. (Middle English)의 Indent에 ion을 附加해서 名詞化한 것이다. Indent는 O. F. (Old French)의 en-와 dent에서 왔으며 en-은 Latin語의 in-, im-에서 온 것으로 “cause to be”(……되게 하다), “provide with”(……제공하다)의 意味이고 dent는 Latin語의 dens에서 온 것으로 dens는 “tooth”(잇빨)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¹⁾

그래서 Indent=en-+dent로 「잇빨이 되게하다」는 뜻이 되며 Indention=Indent+ion으로 “툼니나 잇빨처럼 한 面의 요철(凹凸)을 意味하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Card式 目錄의 基線이란 말은 Card의 記錄事項에 對한 記載에서 基本記入의 始作인 第1 基線(First Indention)과 書名事項(著者事項 包含), 對照事項, 一般註記, 副出指示, 副出標目等の 記錄의 始作인 第2 基線(Second Indention)으로써 前者와 後者와의 사이에 均衡하는 記載上的 差異를 말한다. 이와같은 記入의 區別된 表示方法은 Card에 記載된 各事項

* 基線이란 用語는 本論 Ⅲ. 1의 理論을 근거로 해서 使用하였다. 이것은 英語의 Indention으로 命名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의 意味에 맞도록 基線으로 하고 全體論文에서 基線(Indention)으로 表示했다.

(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66)

4 도서관학논집

의 識別을 明確하게 하고 閱覽者와 事務者들에게 必要한 各 事項의 檢索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의 命名法은 보통 Indention으로 稱하고 있으나 學者에 따라 다소 그 意味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辭典에 나타나는 Indention의 뜻을 보면 “(행의 첫머리를) 안으로 밀어넣기” “(글자를 밀어 넣어서 생긴)空間, 空白” “들쭉 날쭉 자국을 내기” “굴곡, 툽니모양의 자국” 등으로 翻譯되고 있다.⁽²⁾ 이와같은 意味의 翻譯은 名詞的인 意味에서 固定된 名稱이 아니라 事實의 進行에 對한 表現이라는데서 圖書館 Card目錄의 基線(Indentation)에 대한 意味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Card上的 基線은 各 事項을 表示하는 記載의 始作이나 繼續을 意味하는 基點의 名稱을 代表하는 하나의 獨立된 名稱이라 하겠다. Indention은 空間이나 屈曲等の 調和있는 表示를 爲한 基點, 基線 혹은 세로의 第1基點, 가로의 第1基點, 第1基線等の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2. 基線의 重要性

Card式 目錄이 圖書館目錄의 主된 方法으로 採擇되고 있는 것은 圖書館의 資料와 그 機能을 發揮하는데 보다 많은 點에서 接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目錄의 具備要件中 基線과 關係되는 項目을 따라 그 重要性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統一性있는 目錄記載⁽³⁾를 爲해서

前述한 바와같이 目錄이 가지는 重要한 機能의 하나가 資料와 利用者를 連結시켜 주는 媒介者로서 資料檢索을 爲한 關鍵이란 것이다.⁽⁴⁾ 圖書館에서 資料를 編目하는 것은 閱覽者나 事務者들에게 迅速하고 正確하게 資料의 位置와 그 內容을 간과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目的達成의 一環은 바로 統一된 目錄記述에서 可能할 것이고 各 記載에 對한 基線은 目

(2) 英韓大辭典 (서울: 韓英出版社, 1977)

(3) 小野則秋 圖書目錄의 作<리>方 (東京: 蘭書房, 1952), p. 3.

(4) Dorothy M. Norris. *A History of Cataloging and Cataloging Methods* (London, 1939)
圖書館學概論, 任鍾淳 著 (서울: 韓圖協, 1969), p. 178

錄을 統一시켜 주는 基礎가 될 것이다.

특주되는 많은 資料에 對한 檢索은 統一된 目錄形式에 依해서 目錄되어야 하고 發展된 圖書館奉仕의 擴大는 協力館끼리의 一貫性있는 綜合目錄(Union Catalog)에 依해서 可能할 것이며 이러한 意味의 統一된 形式의 充足은 基線의 統一性에서 기인되어야 할 것이다.

Card式 目錄의 機械化는 印刷 Card에 依한 統一된 目錄方法과 情報를 連結할 수 있는 諸機關들에 機械化可讀이 可能할 수 있는 正確하고 統一된 記載形式인 基線이 要求되어 진다.

2) 各 事項의 區分을 爲해서

圖書目錄이 가지는 그 機能은 단순히 品名을 나열하고 所在를 알려주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Margaret Mann女史가 지적한 7가지의 目錄機能⁽⁵⁾에 보다 가깝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目錄은 資料가 가지고 있는 內的이고 外形의인 暗示를 통해서 利用者로 하여금 目錄을 통한 資料檢索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資料에 對한 윤곽이 把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充足할 수 있는 目錄이 갖추어야 할 事項의 表示는 目錄作成者가 共히 認定할 수 있는 一貫性있는 記錄이어야 하고 또한 記錄되는 많은 事項은 檢索者들이 쉽게 發見하고 識別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보다 迅速하고 正確한 자료 提供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諸 與件造成的의 하나가 바로 正確한 基線에 있다고 하겠다.

3) 限定된 紙面의 充分한 活用을 爲해서

國際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圖書館 資料에 對한 目錄 Card는 가로 12.5cm, 세로 7.5cm의 크기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限定된 카아드면에 하나의 資料를 把握하는데 必要한 所在表示(請求番號), 書名에 關한 事項, 著者에 關한 事項, 版次에 關한 事項, 出版에 關한 事項, 對照를 爲한 事項, 冊의 特徵이나 所屬, 內容을 表示하는 註記事項, 事務事項, 副出指示事項等 資料에 對

(5)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 (2nd. ed. Chicago: ALA., 1943) p. 101

6 도서관학논점

한 充分한 案內를 爲한 記錄은 目錄 作成者들로 하여금 細心한 空間處理의 묘를 要求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Card面의 空間處理의 一環으로 要求되는 것이 바로 基線이라 하겠다. 上述한 많은 事項에 對한 記載는 基線의 正確한 表示에서 그 謹別이 보다 容易할 것이고 基線을 通한 Card面의 充分한 空間處理는 目錄이 가지는 機能은 물론 圖書館의 目的達成에 直接的으로 聯關될 수 있는 與件形成이란 點에서 基線의 重要性이 크게 要求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重要視되는 目錄 Card의 基線은 圖書館이나 目錄學者, 혹은 地域에 따라 그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그 設定의 單位도 「“Cm” 單位」, 「“Space” 單位」, 「“Cm”과 “Space”의 절충」등으로 表示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들의 差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基線(Indention)의 種類와 그 比較

1. 基線(Indention)의 名稱

前章의 語源을 通해서 名稱에 對한 약간의 言及은 있었으나 本章에서는

〈表 1〉

			..가로 1線 △橫線
		←△第3垂線 ○第3基線 ·第3級	<資料>
·第1線 △第1垂線 ..세로 1線 ○第一基線 ▽第1인선	·第2線 △第2垂線 ..세로 2線 ○第2基線 ▽第2인선	☆Second Indention Inner Indention Outer Indention Paragraph Indention Author Indention	△學校圖書館辭典 ·日本目錄規則, 1965年版(東京:日本圖協, 1955) p. 29, 109. ..국립대학교圖書館運營資料, 昌原教育研究所 編, 서울, 學藝社, 1964. p. 91. 프리 ○和漢書目錄의 づくり方, 岩淵泰郎 編, 東京, 日本圖協, 1970. p. 31. ▽韓國目錄規則解説, 張一世者. 서울, 韓圖協, 1968. p. 27.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ALA, 1943. p. 53. 122.

基線이 內包하고 있는 屬性에 따라 雜多하게 불리워지고 있는 名稱을 調査하고 그 命名의 表示를 筆者의 見解에 따라 分析해 보고자 한다.

〈表 一〉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몇개의 基線의 名稱을 나열한 것이다. 이들 名稱을 다시 區 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立場에서 그 命名의 動機를 살펴 볼 수 있다.

a. 線이 그어진 方向의 表示

Card 面에서 基線이 그어진 方向을 中心으로 부쳐진 이름인데 Card面을 縱이나 橫, 즉 세로나 가로로 그어진 線이라 해서 첫번째 세로로 그어진 線의 表示를「세로 1線」, 두번째의 것을「세로 2線」또한 가로로 그어진 線이라 해서「가로 1線」이라고 하였다.⁽⁶⁾

또한 카아드面을 수직과 수평으로 그어진 線이라는 意味에서 처음 수직線을「제 1 垂線」이라 하고, 水平, 즉 橫으로 그어진 線이라해서「橫線」이라 命名하고 있다.⁽⁷⁾

b. 線이 그어진 順序의 表示

Card의 左側 난간으로 부터와 상단으로 부터 線이 그어진 차례를 表示하는 命名法이다. 그래서 左側 난간으로 부터 처음에 그어진 線을 第1 基點이라는 뜻에서「第1 基線」, 두번째 基準線을「第2 基線」⁽⁸⁾이라 하고 英語에서는 第1 基準線을「First Indention」, 第2 基準線을「Second Indention」⁽⁹⁾으로 表示하고 있다.

c. Card의 中心으로 부터 內側과 外側의 表示

Card의 中心을 基點으로 해서 線이 그어진 順序를 定하여 命名한 方法이다. 그래서 Card에 그어진 基準線이 內側에 가장 가까운 線을 內線, 즉 Inner라고 하고 中心으로부터 왼쪽 난간에 가까운 線을 外線, 즉 Outer라고 表示해서 目錄上 第1 基點을「Outer Indention」, 第2 基點을「Inner

(6) 昌原教育研究所 編, 國民학교 圖書館運營資料 (서울: 學藝社, 1964), p. 91.

(7) 深川恒喜, 井澤純, 室伏武 編, 學校圖書館辭典 (東京: 第一法規, 昭和 43(1968). p. 109

(8) 岩淵泰郎 編, 洋漢書目錄の つくり方 (東京: 日本圖協, 1970) p. 31

(9)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p. 58

Indention」⁽¹⁰⁾으로 命名하고 있다.

d. 目錄의 記載事項을 中心으로 한 表示

目錄에 記載되는 많은 事項中 記錄에 가장 基準이 되는 著者名과 書名事項을 基線의 名稱으로 命名한 것이다. 目錄에 記載되는 事項中 著者名基本記入 原則을 中心으로 著者名基本記入이 始作되는 線을 表示하는 意味로 第1 基準線을 「Author Indention」 혹은 「Paragraph Indention」이라 하고 第2 基準線은 書名事項이 始作되는 線이라 해서 「Title Indention」⁽¹¹⁾이라 고 命名하고 있다.

〈表 2〉

			基本記入線
	第一基線	第二基線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基線, 즉 Indention에 關한 名稱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獨立的으로 命名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洋書에서 使用하고 있는 Indention을 아무런 批判없이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그래서 目錄者나 利用者의 理解를 增進

시키기 爲해서 우리것에 맞는 基準의 設定이 要請된다.

Indention(基線)은 어디까지나 어떤 位置를 알리고 固定된 意味를 內包하는 뜻에서 “基線”이라 命名하므로써 目錄의 諸 事項을 記錄하고 基點을 表示해 주는 線이라는 點에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알아 First Indention을 第1 基線이라 하고, Second Indention을 第2 基線이라 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막연하게 橫線, 가로線 등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基本記入을 記載하는 標準線이라는 點에서 “基本記入線”이라 命名하여 보았다.

2. 基線의 基準

基線을 定하는 間격의 單位는 크게 나누어서 “Space” 단위와 “Cm” 단위의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各 基線間의 間격의 單位는 使用되는 文字, 目

(10) *Ibid*

(11)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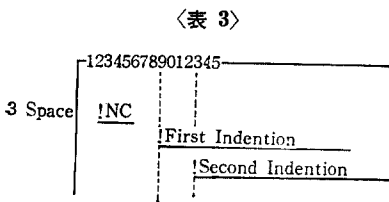
錄의 記述方法, 目錄에 使用되는 도구⁽¹²⁾ 등에 따라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各 單位內에서도 圖書館, 學校나 國家等에 따라 약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 各 單位에 따른 種類와 그 問題點을 알아보고자 한다.

a. "Space" 單位

이는 主로 洋書用 目錄의 基線의 單位로서 機械에 依한 目錄의 間격 基準이라 하겠다. 즉 Typewriter의 Key Space를 各 基線의 間격의 基準으로 한 것이다. 이와같은 Space에 依한 基準은 대개 Card의 左側 間격으로부터 定하고 있어 目錄 作成者가 Typewriter의 Space를 固定시켜 白面의 Card上에 打字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論述한 "Cm" 單位에 依해 印刷된 基線보다는 約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白面의 Card를 使用한다는 意味에서 目錄에 使用되는 Typewriter의 Key⁽¹³⁾의 크기에 對한 間격이 目錄基線의 間격을 決定하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는 固定된 基線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目錄者에 따른, 타자가 始作되는 位置에 따라 同一한 Typewriter라고 해도 1~2 space 정도의 差異가 있을 수 있고 比較的 융통성있는 基線의 基準이라 하겠다.

다음에서 使用되고 있거나 文獻上에 나타난 基線의 基準을 調査해 보고 이들의 差異點을 比較해 보고자 한다.

1) Mann, Margaret⁽¹⁴⁾의 경우



〈表 3〉에서 보는바와 같이 Mann 女史는 基線을 第 1 基線(First Indentation)과 第 2 基線(Second Indentation)으로 쓰고 있으며 第 1 基線(First Indentation)은 左側 間격으로 부터 9

space, 第 2 線基(Second Indentation)은 13 space에 두고 있어 各基線의 間

(12) Typewriter, 公刊인쇄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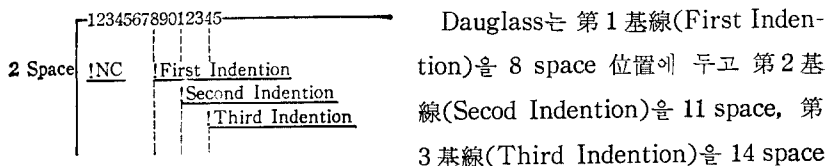
(13) Key의 크기와 間격은 字體형식인 Pica(一字間격 0.25cm)나 Elite(一字間격 0.21cm)냐에 따라 다르다.

(14) Mann, Margaret. *op. cit.*, p. 28.

격을 比較的 여유있게 設定하고 있다. 請求番號(Call Number)와의 關係는 그 始作을 左側 난간으로 부터 2 space와 上段 난간으로 부터는 3 space(3行)에서 하고 있어 第一基線(First Indention)과의 간격을 7 space로 上段에 많은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說明될 基準에 비해 特色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형식은 다른 많은 基線의 決定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Cm”單位 基線(設定에 가장 가깝게 接近되고 있어 事實上 모든 基線의 基準設定을 위한 基本形式이 되고 있다

2) Dauglass, Robert R.⁽¹⁵⁾의 경우

〈表 4〉



에 두고 있어 第1과 第2와 第3 基線의 간격을 동일하게 3 space로 하고 있다. Mann의 경우에 비하면 各基線의 간격이 좁게 잡혀 있으나 대신 請求番號(Call Number)의 記載를 左側으로 부터 1 space, 上段으로 부터 2行에서 始作하게 하여 請求番號(Call No.)와 第1 基線(First Indention)의 간격을 Mann과 같이 7 space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Dauglass의 基線 設定의 特徵은 모든 記入事項을 Card의 上段과 左側으로 集中시키고 있다고 하겠고 이로 인한 請求番號의 記載位置가 左側난간에 가깝게 接近되어 있기 때문에 빈번한 카드의 檢索으로 困한 Card의 따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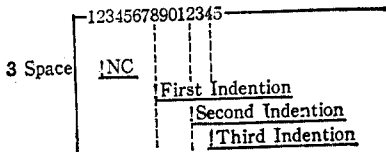
3) Akers, Susan Grey⁽¹⁶⁾의 경우

Akers는 Dauglass와 同一하게 第1 基線(First Indention)을 8 space에

(15) Robert R. Dauglass(comp.) *Handbook of Card Forms for use in Cataloging* (Chicago: Wilcox and Follett Co., 1950), p. 5

(16) Susan Grey Akers, *Simple Library Cataloging* (4th ed. Chicago: A.L.A., 1954) p. 79, 236, 238.

〈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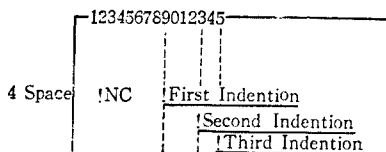
두고 있으나 第2基線(Second Indentation)은 12 space, 第3基線(Third Indentation)을 14 space에 두고 있다. 第1과 第2基線은 Mann과 同一하게 4 space의 간격을 두고 있으나 第

2와 第3基線의 간격은 2 space로 二段式 記入形式의 基線을 中心으로 하고 第3基線(Third Indentation)은 補助基線의 形式으로 Wynar와 같이 前者의 1/2 간격의 基線을 設定하고 있다.

Akers의 基線에 對한 特色은 請求番號의 始作이 左側으로 부터는 2 space 上段으로 부터는 3行線에서 하고 있어 第1基線과의 간격이 6 space로 되어 있다. 그래서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左側와 上段으로 부터는 記入의 位置가 比較的 여유가 있으나 請求番號의 圖書記號와 基本記入과의 간격으로 나타나는 各 事項의 識別에는 약간의 영향이 예상된다.

4) Wynar, Bohdan S. (17)의 경우

〈表 6〉



〈表 6〉에서와 같이 Wynar는 第1基線을 9 space의 位置에 두고 있어 Mann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基線과의 간격을 넓게 設定하고 있다. 請求番號의 記載位置는 左側으로 부터 2 space, 上段으로 부터는 4行線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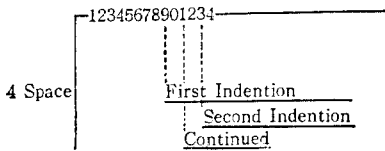
始作하게 하였고 請求記號의 始作과 第一基線과의 간격은 7 space로 하였다. 第2基線은 13 space上에 두었고 第1基線과의 간격은 4 space로 두고 있다. 第1基線과 第2基線의 設定은 Mann의 形式과 同一하나 第3基線을 補助基線으로 前者의 1/2의 간격인 15 space에 두므로써 事實上 二段式 目錄形式의 固定된 觀念을 강하게 內包하고 있다.

(17)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4th ed.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Inc., 1972) p.18-19.

Wynar의 形式의 特色은 Wilson 印刷 card와 같이 請求記號의 分類番號를 基本記入과 同一線上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Dauglass의 경우와 같이 各 基線間의 間격이 一定하지 않은 點이라고 하겠다.

5) Dean, Hazel⁽¹⁸⁾의 경우

〈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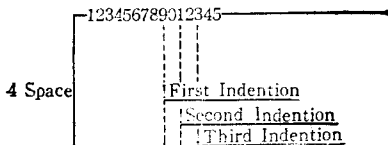
Dean은 〈表 7〉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基線의 表示를 第1 基線을 左側으로 부터 9 space, 第2 基線을 11 space, 第3 基線은 副出標目的 繼續記入을 爲한 基線의 形式으로 13 space에 두고 있다. 그리고 上段으로 부터는

基本記入을 4行線에 두고 있어 L.C印刷 Card의 基本形式과 同一하게 設定하고 있으나 各 事項의 記載形式은 L.C 것과는 달리 完全한 二段式을 택하고 있다.

Dean의 基線設定에 關한 特色은 各 基線의 間격을 同一하게 設定하고 있으면서 그 間격이 2space로 비교적 좁게 設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6) L.C 印刷 Card⁽¹⁹⁾의 경우

〈表 8〉



L.C의 印刷 Card는 그 보급이 國際的인 Dewey의 記述形式으로 상당히 널리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L.C印刷 Card의 基線에 對한 形式은 〈表 7〉에서 보는것 처럼 三段式形式과 같이 第3 基線까지 使用하고 있으면서

實際적으로는 二段式形式의 變칙이라 하겠다. 請求番號는 表示에 對한 指示가 없기 때문에 L.C 印刷 Card를 使用하는 圖書館에서 임의로 조정 記載하게 하고 있다. L.C 印刷 Card는 前述한 바와 같이 特殊한 記載形式 때문에

(18) Hazel Dean, *Cataloging Manual to Supplement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67 (Los Angeles, 1969) p. 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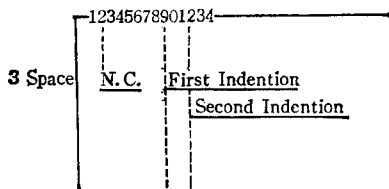
(19) L.C Card No. 12 -21301, 41-51565, 50-36569 등 參照

그 基線의 基準을 特別한 形式으로 다음과 같이 定義하여 보았다.

第1 基線은 Card의 左側 間간으로 부터 9 space의 間격을 두고, 基本記入을 除外한 書名, 對照事項, 註記, 副出指示 等の 記載를 위한 第2 基線을 13 space에 두어 第1 基線으로 부터 4 space의 間격을 設定한 것은 Mann이나 Wynar의 경우와 同一하다. 그러나 그 記載形式이 第1 基線과 第2 基線의 사이인 11 space에 中間線을 두고 第2 基線에서 始作한 諸 事項의 계속을 中間線에서 하게 하므로 二段式記載形式에서 基本記入을 돌출시킨 것이 다른 形式과 區別되는 特徵이라 하겠다.

7) Wilson 印刷 Card⁽²⁰⁾의 경우

〈表 9〉



Wilson 印刷 Card는 請求記號의 分類番號를 Wynar와 같이 基本記入과 同一線상에 印刷하고 있다. 基線의 表示는 第1 基線을 間간으로 부터 9 space로 L.C 印刷 Card와 同一하나 第2 基線은 第1 基線으로 부터 3 space의 間격인 12 space線상에 設定하고 있다.

고 있다.

이 印刷 Card의 特徵은 前述한 바와 같이 二段式形式에 따라 記載하고 있으나 對照事項과 副出指示事項의 記載方法은 L.C 印刷 Card나 다른 形式과는 달리 第1 基線에서 그 記載를 始作하는 것이 특이한 事項이라 하겠고 또 한가지는 L.C 印刷 Card에 비해 그 記載되는 各 事項을 간략한 形式으로 探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b. “Cm” 單位에 依한 基準

基線의 間격기준을 “Cm”로 表示한 것으로 各 基線의 基準間격을 一定한 “Cm” 單位에 依해서 從線 2個와 橫線 1個를 印刷하여 使用하고 있는 一名 東洋式 Card 樣式이다. 이는 主로 東洋 言語의 特色에 맞는 表示 方法이라

(20) Wilson 印刷 Card. 4-1-55, 2-8-57, 10-5-51, 58W1015등 參照

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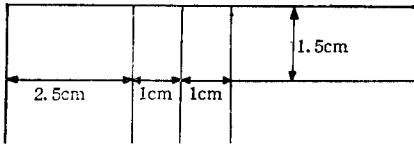
이는 手書에 依해서 目錄을 作成하고 있는 地域圖書館들의 하나의 公式화된 標準 Card形式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單位, 즉 “Cm”의 基準에 對한 根據는 前述한 “Space” 單位에서 起因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rd의 左側 間간으로 부터 第 1 基線과의 距離는 보통 2cm와 2.5cm로 設定하고 있다.

2cm의 경우를 보면 Typewriter(英文) 活字 Pica의 8 space 간격이고 Elite는 9 space의 간격이다. 2.5cm의 경우는 Pica의 9 space인 셈이고 Elite는 12 space의 간격이다. 그리고 第 1 基線과 第 2 基線과의 間間격을 1cm로 하는 것은 Typewriter의 Pica의 경우는 4 space의 간격으로 左側 間간으로 부터는 13 space의 位置가 된다.

Card의 上段으로 부터의 1.5cm는 타자기의 1行을 0.4cm 정도로 볼 때 3行半이 된다. 다음에서 “Cm” 單位로 쓰여지고 있는 Card의 諸 要件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印刷된 Card의 경우⁽²¹⁾

〈表 10〉



〈表 10〉의 것은 韓國圖書館界에서 標準形式처럼 쓰여지고 있는 카드형식이다. 第 1 基線은 左側 間간으로부터 2.5cm 位置에 두고 第 2 基線과

第 3 基線은 그 間間격을 1cm로 統一하여 區分하였다. 上段으로 부터의 橫線, 즉, 記入線은 Typewriter의 4行의 間間격인 1.5cm 線上에 表示하고 있다.

이 形式은 前述한 Mann의 경우와 同一한 形式이 되며 대개는 第 2 基線 까지만 印刷로 表示하고 있으나 어떤 것은 第 2 基線 까지는 明確히 直線으로 表示하고 第 3 基線은 회미하게 表示할 하고있다.

2) 印刷 Card의 경우⁽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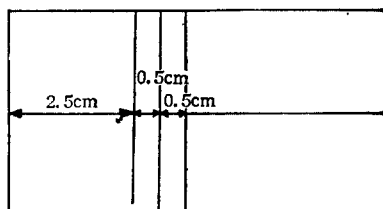
(21) 市販 Card 參照

玄源明, 學校圖書館資料의 整理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0) p. 157, 158

(22) 各 圖書館의 印刷 Card 參照

韓國 國會圖書館 印刷 Card는 基線에 關한 규격이 Card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段式 記入形式으로 各 基線을 0.5cm의 間間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시켰다. 國立中央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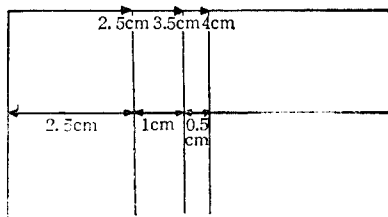
〈表 11〉



이는 韓國國會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에서 印刷 Card를 發行하고 있는 것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들 Card는 第1基線은 前者와 같이 2.5cm에 第2基線을 3cm에 第3基線을 3.5cm線上에 設定하고 있어 第2, 第3의 基線上的 間격을 0.5cm로 共通하고 있다. 韓國의 印刷 Card의 경우에는 完全히 二段式에 依해서 第2基線까지를 使用하고 第3基線은 副標目的 계속사항에 記載를 爲해서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國會圖書館 印刷 Card의 경우 前者에 表示한 第1과 第2基線間의 間격 1cm를 完全히 半分하여 二段式目錄에 依한 基準의 範圍에서 二段式目錄의 效果를 내고 있어 三段式의 短點인 Card面의 낭비를 部分的이나마 카버하고 있다고 하겠다. 各 基線의 間격을 0.5cm로 設定한 것은 前者의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좁다고 하겠으나 印刷다는 點에서 活字의 明度와 크기에 따라 基線이 明確히 區分될 수 있어 불편한 점이었다. 그러나 手書 Card의 基線으로는 不適하다고 생각된다.

3) 日本市販 Card의 경우⁽²³⁾

〈表 12〉



日本の 用品業者들에 의해서 販賣되고 있는 Card를 基準으로 하였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1基線은 2.5cm에 두고 있으나 第2基線은 3.5cm線上에, 第3基線은 4cm線上에 設定하고 있어 第1基線과 第2基線間의 間격은 1cm로 하고 第2와

의 경우는 二段式記入形式으로 國會圖書館이나 日本의 國會圖書館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第2基線을 第1基線으로 부터 0.5cm 間격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함께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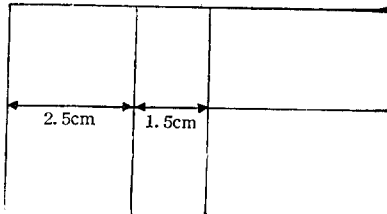
日本 國會圖書館의 印刷 Card는 岩濤泰郎 編……*op. cit.*, p. 31 參照

(23) 日本의 市販 Card 參照, 岩濤泰郎 編……*op. cit.*, p. 31.

第3基線과의 사이는 0.5cm로 各基線間의 간격을 各各 다르게 表示하고 있다. 그래서 實際的인 記載에서 基本記入을 보다 明確히 드러나게 하고 第2基線의 간격을 더 넓게 두고 있다. 그리고 三段式과 二段式記錄方法이 可能 할 수 있도록 그 基線을 設定하고 있다고 하겠다.

4)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24)에서

〈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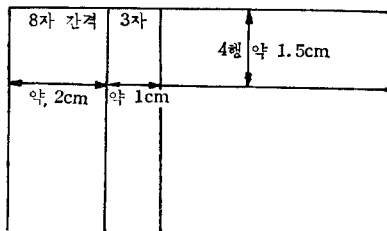


이것은 特別히 채기할 만한 理論은 되지 못하지만 罫이 種類를 表示해본다는 意味에서 이를 提示하였다. 〈表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前述한 形式과는 달리 第2基線을 4cm線上에 두고 있어 日本市販 Card形式의 第3基線

을 第2基線으로 使用한 것 같다. 그래서 第1基線과 第2基線間의 간격을 1.5cm로 特別히 넓게 책정한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5) “韓國目錄規則解說”(25)의 경우

〈表 14〉



〈表 14〉에 나타난 基線設定의 特色은 지금까지 提示된 것과는 달리 第1基線을 약 2cm로 하고 있다. 이는 前述한 Akers의 基準과 同一한 間격이라 하겠다. 그리고 第1基線과 第2基線과의 간격을 약 1cm로 表示하고 있다. 이 基線의 表示는 洋書의 Typewriter의 Space를 Cm化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낸 것 중에는 가장 좁은 基線간격으로 請求番號의 表示에 상당한 혼선이 豫想된다.

(24) 金永起, 金完起 共編,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 (서울: 教育資料社, 1969), p. 65.

(25)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協, 1968), p.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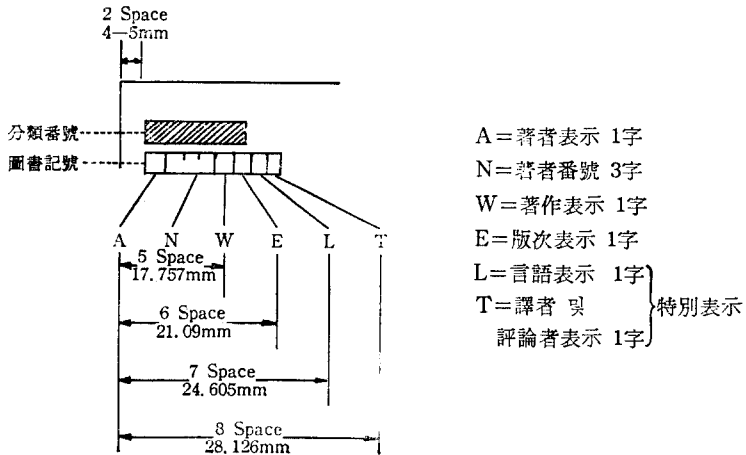
丸山昭二郎 編, 洋書目錄의 作り方 (東京: 日本圖協, 1976) p. 26.

Ⅳ. 基線과 請求記號와의 關係

前述한 基線의 諸 理論을 綜合하여 各 理論間의 關係를 比較하고 設定된 基線과 請求記號와의 關係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分析에 앞서 請求番號中 基本記入과 가장 關係가 깊은 圖書記號의 構成에 對하여 알아 보고 圖書記號가 차지하는 “Space”와 “Cm”單位の 間격을 調査하여 基線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하였다.

〈表 15〉 圖書記號의 構成



☆ 字의 크기에 대한 間格은

“Space”單位는 1字=1 space=Pica 0.25cm

“Cm”單位는 1字=10pt기준 3.515mm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記號는 편의상 基本的인 表示와 特別分類를 爲한 表示로 생각하였다. 基本表示는 어떤 圖書이든 基本的으로 構成되는 圖書記號事項인 著者表示, 著者番號, 著作表示에 版次表示를 追加시켜 생각하였고 特別分類를 爲한 表示로 圖書記號의 “Space”에 關係가 있는 翻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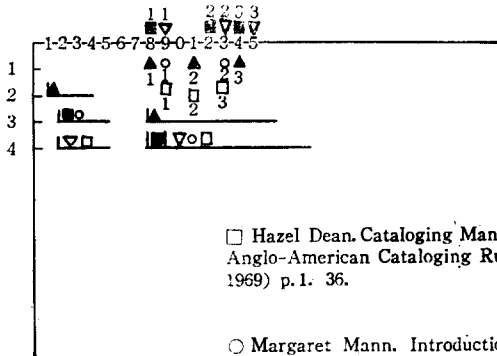
書로서 言語表示(國語表示) 譯者表示와 評註書의 評註表示, 評註者表示를 생각하여 基本表示에 2字를 더 附加시킨 間격을 생각하였다.

다음에서 請求番號와 各 基線과의 關係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Space" 單位에 依한

〈表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基線은 學者에 따라서 다소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第 1 基線은 Akers와 Dauglass의 경우 8 space에, Wynar와 Dean

〈表 16〉



□ Hazel Dean. *Cataloging Manual, to Supplement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67.* (Los Angeles, 1969) p.1. 36.

○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1943) p.28.

■ Susan Grey Akers. *Simple Library Cataloging.* (4th ed. Chicago: ALA., 1954), p.79. 236. 237. 238.

John J. Boll. *Introduction to Cataloging, Vol. 1: Descriptive Cataloging.* (New York: McGraw-Hill, 1970). p.91.

▽ Boh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4th ed.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Inc., 1972). p.18-19.

Hon Kong Printed Card에서도 同一한

▲ Robert R. Dauglass (Comp.) *Handbook of Card Forms for use in Cataloging.* (Chicago: Wilcox and Fellett Co., 1950) p.5.

(L.C와 同一)과 Mann의 경우 9space 上에 設定하고 있다. 第2 基線의 경우는 11~13 space 사이에 設定하고 있는데 第1 基線으로 부터의 거리는 4 space가 가장 많은 것으로 Wynar, L.C., Mann, Akers가 同一하게 定하고 있고 이 중에서 L.C., Wynar, Mann은 第2 基線까지를 同一線上에 一致시키고 있다. 가장 좁은 간격을 設定하고 있는 것이 Dean의 경우 2space 이고, 다음으로 Dauglass 경우가 3space 順으로 되어있다. 第3 基線은 二段式 Card에서는 거의 表示하지 않고 있으나 몇개의 表示된 것을 基線으로 보면 14—15 space 사이에 表示되고 있다. Akers와 Dauglass는 14 space에, Wynar는 15 space에 設定하고 있다. Akers와 Wynar는 第2 基線의 4space 간격에 1/2인 2space의 간격을 두고 있고 Dauglass는 第2 基線의 간격과 同一하게 3space로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第3 基線의 設定은 二段式形式에 依해서 記載되고 있는 規定에서는 副標目的 계속을 爲한 補助線으로 設定하고 있어 二段式의 主된 基線인 第2 基線까지는 Space의 간격을 充分히 두고 있으나 第3 基線은 大部分 表示않은 것이 많고 表示된 것은 基本線의 1/2 程度에서 設定하고 있다.

基線의 Card 上段으로 부터의 간격은 Dauglass만 3行(3 space)線上에 設定하고 있고 그 外에는 한결같이 4行線上에 設定하고 있다. 請求番號中 分類番號와 基本記入과의 上段으로 부터의 行의 關係는 Dean와 Wynar만 分類番號와 同一線上에 記載하고 그의 Mann, Akers, Dauglass는 基本記入보다 上段으로 부터 1行앞에 記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實際적으로는 圖書記號와 同一線上에 記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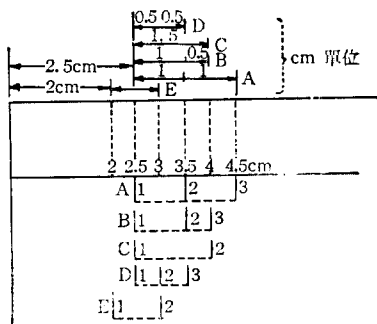
請求記號와 第1 基線과의 關係를 보면 <表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圖書記號의 基本的인 Space인 6space와 請求記號의 記載의 始作인 2space를 加算하면 8space가 所要된다. 이렇게 보면 第1 基線을 8space 線上에 設定하고 있고 Akers와 Dauglass의 경우는 圖書記號의 基本表示만으로도 基本記入과의 關係에서 區分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第1 基線을 9space에

設定하고 있는 L. C., Mann, Wynar의 경우는 8 space 上에 둔 前者의 경우보다는 比較的 여유를 보이고 있으나 이때에도 圖書記號의 基本的인 表示인 8 space를 생각하면 불과 1 space의 여유 밖에 없다. 그리고 特別分類를 爲한 간격 2 space를 添加해서 생각하면 圖書記號에 所要되는 Space만도 10 space의 간격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基本表示를 爲한 第1 基線의 9 space 간격은 그런데로 使用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基線 역시 固定된 概念의 第1 基線의 Space에서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圖書가 가지고 있는 構成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設定 되어야 하겠고 第2 基線과 第3 基線은 第1 基線의 設定에 따라 第1 基線을 基準으로 設定해야 하겠다.

2. “Cm” 單位에 의한

〈表 17〉

“Cm” 單位의 基線



資料：

- A. 韓國의 市販 Card
- B. 日本의 市販 Card
- C.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
- D.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 印刷 Card
- E. 韓國目錄規則 解說

“Cm”單位에 의한 基線은 그 基準이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第1 基線의 경우를 보면 2.5cm 간격을 主로 定하고 있는데 「韓國目錄規則解說」을 除하고는 韓國이나 日本에서 共히 2.5cm로 거의 共通되고 있다. 第1 基線과 第2 基線의 간격은 0.5cm와 1cm, 1.5cm로 하고 있는데 韓國國會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等 Card의 作成이 主로 印刷 Card에 依한 것은 0.5cm의 간격이고 그外 市販이나 手書에 의존하고 있는 圖書館에서는 대개 1cm의 간격을 두고 特別히 「學校圖書館

運營의 實際]에서 단 1.5cm로 하고 있다.

第3 基線은 前述한 “Space”單位에서와 같이 그 表示를 省略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特히 表示된 것을 主로 해서 생각해 보면 「韓國의 用品商」의 경우는 第2 基線의 간격과 同一하게 1cm로 하고 印刷 Card에 依한 것도 同一하게 0.5cm線上에 두고 있으나 「日本市販」規格에서 단 第2 基線의 1cm와는 달리 0.5cm의 간격을 設定하고 있다.

上段으로 부터의 간격은 特別한 指示가 없으나 대개 上段으로 부터 4行間格인 1.5cm線을 基本記入이 되는 橫線으로 定하고 있다.

請求記號와 第1 基線과의 關係는 space單位에서와 같이 基本的으로 차지하는 圖書記號의 所要간격은 2.109cm로 請求記號 記載前의 空白 4mm를 생각하면 圖書記號가 끝나는 간격은 2.509cm의 거리가 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第1 基線을 2cm線上에 定한 「韓國目錄規則解說」의 경우는 圖書記號中 作品表示 程度밖에 못하는 간격이라 하겠다. 또한 第1 基線을 2.5cm의 경우도 基本的인 圖書記號 表示가 不可能할 정도로 좁은 Space라 하겠다. 그리고 圖書記號上에 表示된 特別分類를 爲한 表示까지 생각한다면 圖書記號의 表示만도 3cm정도의 간격이 必要하다고 본다. 이런 意味에서 固定된 概念의 基線의 表示에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으며 지금까지 標準처럼 使用되어 온 〈表 17〉의 基線規定에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그 問題點의 解決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이 지금까지 表示되고 있는 “Space”와 “Cm”單位의 基線表示方法이었다. 이외에도 商人들에 依해서 無秩序하게 表示하고 있는 基線의 種類라든가 各 圖書館에서 個別로 印刷하여 使用하고 있는 것도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公認할 수 있는 基準이 될 수 없다는 點에서, 또한 대개의 경우는 前述한 諸 範疇속에 속할 것으로 보고 이것들만 基準으로 分析하였다. 그리고 前述한 모든 事實들, 즉 “Space”와 “Cm”單位등은 보는 바와 같이 그 基線들의 名稱이나 基準을 어떤 意味에서 國際標準의 基準이라고 하였는지 과연 國際標準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圖書館網을 單位로 하는 統一된 形式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Cm” 單位에 依한 基準은 分明 手書를 主로 하고 있는 東洋文字의 Card作成을 爲한 基準이면서 異論없이 西洋의 것을 받아 들였거나 單文字로 쓰여지고 있는 日本의 것을 複合文字(자음+모음)로 된 우리 文字에 그대로 適用하여 使用되고 있어 이로 因해 야기되는 問題點에 대한 解決方案이 講求되어야 할 것이다.

3. 獨立된 記載方法에 의한

基本記入의 記載位置와 請求番號의 記載位置를 別個의 것으로 獨立해서 圖書館에 따라 임의로 選定하는 경우를 말한다. 請求番號中の 分類番號를 印刷Card의 下段에 別度로 暗示하고 이를 使用하는 圖書館에서 適切한 位置를 定하고 그 곳에 請求番號를 記載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記述目錄의 範圍에서만 基本記入을 생각하게 하므로써 請求番號와 區別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의 代表的인 것은 L.C 印刷 Card를 들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印刷 Card를 들 수 있겠다.

이들 印刷 Card는 請求番號를 除外한 全體目錄事項을 印刷하고 또한 임의로 選定할 수 있는 諸 事項은 Card下段에 表示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項의 記載位置, 規定, 역시 一定한 基線을 表示하고 있는데 第1基線은 9 space나 2.5cm간격에 表示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좁은 것은 8 space나 2cm의 간격을 維持하고 있다.

이렇게 獨立된 形式은 請求番號의 一部를 固定하고 있는 Wilson 印刷 Card의 경우나 Wynar의 경우에 비해서 請求番號로 因한 基線의 位置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點이 長點이 될 수 있다.

그러나 請求番號의 記載位置의 選定이나 記載方法이 各 圖書館에 따라 임의로 決定되기 때문에 一貫性있는 形式을 찾기가 힘들뿐 아니라 請求番號의 複雜性으로 因한 記載位置의 變更이 불가피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印刷 Card

에 使用된 活字不均衡으로 因한 請求番號 表示의 빈약으로 目錄의 본래 機能인 統一性, 迅速性, 正確性에 對한 目的達成에도 차질이 豫想되며 請求番號의 記載位置로 因한 空間處理 問題도 關心있게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4. 活字와 基線

“Cm”를 單位로한 基線과 請求番號, 基本記入에 채기된 活字의 크기를 中心으로, 現在 發行되고 있는 國會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과 日本國會圖書館의 印刷 Card의 活字를 主로하여 分析하고 各 基線과의 關係를 생각하여 보았다.

前 章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東書의 “Cm”單位의 基線의 基準은 Typewriter의 Key, 즉 Elite의 space의 크기 0.21cm와 Pica의 0.25cm에 依한 基準의 差異로 나타난 2cm 혹은 2.5cm의 基線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活字의 크기는 洋書目錄, 즉 Typewriter에 依해서는 그 基準自體에 問題點이 없다고 하겠으나 東洋書의 目錄作成에는 상당한 問題를 안고 있으며 基線이 印刷된 Card를 使用하므로 因해 많은 問題가 야기된다. 그 問題點은 ① 手書에 依한 Card作成의 경우 目錄者의 글씨에 따라 使用되는 字體의 크기에 융통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② 印刷로 作成되는 目錄에서 채택된 活字의 크기에 다른 調整에 差異를 나타낼 수 없다. ③ 소수 圖書館 用品業者들의 專門知識의 결여로 規格에 맞지 않는 제멋대로의 基線印刷가 아직 教育되지 않은 目錄者들에게 印刷된 基線으로 因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④ 請求番號와 基本記入과의 區分을 爲한 基線의 機能을 상실하게도 한다.

이와같은 諸 與件을 參照해서 洋書의 Typewriter space와 같이 目錄에 채기될 수 있는 活字의 point를 基準으로한 基線의 간격을 調整해 보았다. 이를 爲해 使用되고 있는 Card目錄의 活字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分析한 活字의 基準은 基本記入과 請求番號에 채기된 文字로 하였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印刷 Card에 使用되고 있는 請求番號의 活字는 8 point에서 10 point로 되어 있으나 基本記入과 書名事項은 모두 14 point를

24 도서관학논집

使用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를 各 事項에 使用된 活字의 point를 보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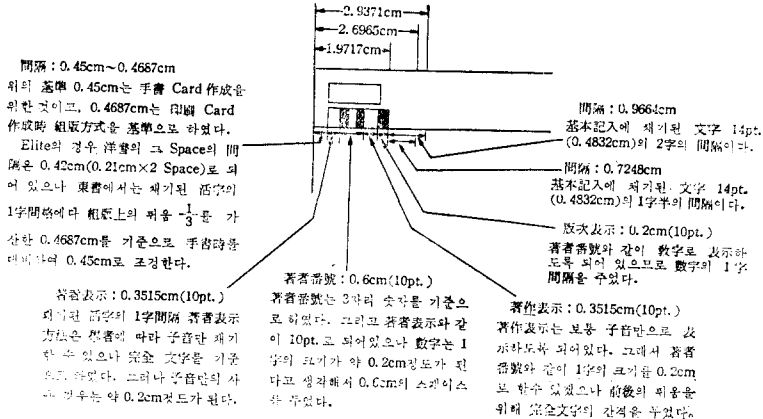
事 項	活 字 크 기	備 考
請 求 番 號	9pt(3.163mm)~ 10pt(3.515mm)	印刷 Card 下段에 表示된 分額番號는 8pt이다.
基 本 記 入	14pt(4.832mm)	
書 名 事 項	14pt(4.832mm)	
著 者 事 項	10pt(3.515mm)~ 12pt(4.217mm)	
對 照 事 項	9pt(3.163mm)~ 10pt(3.515mm)	
版 次 事 項	9pt(3.163mm)~ 10pt(3.515mm)	
註 記 事 項	9pt(3.163mm)~ 10pt(3.515mm)	
副 出 指 示	9pt(3.163mm)~ 10pt(3.515mm)	

등으로 되어 있다.

現在 쓰고있는 基線의 간격 ① 圖書記號의 基本的인 事項인 著者表示, 著者番號, 著作表示, 版次表示인 6個의 符號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 所要되는 15.03mm를 除하면 圖書記號의 끝남과 基本記入과의 간격은 약 5mm로 洋書의 1 space 半에 불과하고 東書의 基本記入 活字간격 14pt(4.382mm)의 1字 간격 程度에서 事實上 基線의 正常的인 機能發揮가 어렵게 되어있다. 여기에다 圖書記號上의 特別分類를 爲한 表示를 附加하면 基線에 依한 간격은 아무런 意味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豫想된다.

이와같은 點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그 解決을 爲한 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① 洋書의 Typewriter와 같이 活字에 依한 조정이 可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② 한글타자기에 依한 目錄作成을 考慮해서 한글에 맞는 字體와 Space가 再調整되어야 한다. ③ 洋書와 같이 Card에 채기되는 活字를 同

〈表 18〉



한 크기로 쓸 것이 아니라 各事項에 맞도록 活字의 調整이 可能하게 하므로서 活字로 因한 識別이 可能하게 한다. 그래서 基本記入, 書名, 標目的 活字와 그 外의 各事項의 活字를 달리해서 東洋의이고 우리 現實에 맞는 目録이 作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앞으로 發展될 目録을 對備해서 Typewriter(공판타자기, 한글타자기 등)나 植字印刷, Computer 使用에 맞는 固定式 基線設定이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V. 東洋書 目録을 爲한 基線의 試案

다음에서 活字의 크기에 따른 그 所要간격과 固定式 基線의 “Cm.” 單位 간격 과의 關係를 實際 그림으로 나타내므로서 東洋文字(韓國, 日本, 中國)에 따른 基線設定을 위한 하나의 試案을 提示해 보았다.

1. 流動式 基線의 設定

여기에서 덧붙여 밝혀 두고 싶은 것은 Sample의 活字의 基準을 國立中央圖書館의 印刷 Card를 參考로 해서 算出한 根據이기 때문에 印刷를 爲한 Card基線設定에서 比較的 正確한 基線이 維持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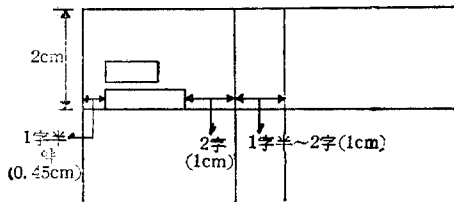
手書者를 爲해서는 이와같은 基線의 設定이 流動的인 것으로 融通性있게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Card樣式에서 第1基線을 2.5cm의 간격 基準에의 고착은 目錄作成에 큰 意義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도 洋書의 “Space”基準과 같이 手書者나 印刷의 字體나, 채기된 活字의 크기에 따라 基準이 設定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論한 것은 圖書記號나 分類記號의 경우 가장 基本的인 6單位(6space)의 것을 基準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特別分類를 爲한 表示의 追加는 基線을 “Cm”單位인 2.5cm나 2cm로 固定시켜 目錄하기 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洋書가 活字의 Space에 依한 것처럼 東洋書目錄에서도 “Cm”單位의 固定觀念에서 活字等の 크기에 依한 基準設定이 보다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이에 對한 것을 나뉠대로 例示하여 보았다.

〈表 19〉



〈表 19〉와 같이 請求番號의 圖書記號始作을 Card의 左側 間간으로 부터 圖書記號에 채기된 文字의 1字半간격 (약 0.45cm)과 上段으로 부터 2cm 線上에 記載한다.

第1基線은 上段으로 부터 2cm 線上에 圖書記號와 同一線에 記載하고 左側間간으로 부터 거리가 아니라 圖書記號 表示가 끝나는데서 부터 基本記入에 채기된 文字의 2字간격(약 1cm)을 둔 位置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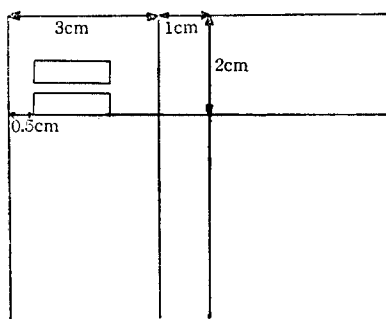
第2基線은 第1基線으로 부터 1字半~2字(약1cm) 간격으로 생각한다. 1字半은 印刷 Card에서, 2字의 간격은 手書 Card일 때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前章에서 指摘된 問題點을 解決하고 各 事項에 對한 正確한 區分과 檢索의 便誼를 위한 視覺的인 效果를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2. 固定式 基線の 設定

上述에서 固定式 基線の 缺點을 指摘하고 이에 따른 解決方案으로 請求番號를 基準으로 한 流動式 基線の 設定을 提案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表 20>에서 보는바와 같이 印刷에 依한 Card作成을 爲해서는, 또한 機械로 處理되어야 할 目錄作成을 爲해서는 基線の 固定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使用되어 온 第1基線の 2~2.5cm를 우리 文字에 맞도록 再調整하여 各 基線を 例示하여 보았다.

<表 20>



請求番號를 各 圖書館에서 임의로 定하여 記載 할 수 있도록 간격의 基準만 表示했다. 그래서 請求番號의 始作을 左側으로 부터 0.5cm 線上에서 한다.

記本記入을 Card의 上段으로 부터 2cm 線上에 둔다(지금까지 提示된 것과 同一).

第1基線은 左側 間隔으로 부터 3cm 位置에 設定한다(이 基準은 表17에 根據한 것임).

第2基線은 第1基線으로 부터 1cm간격인 左側 間隔으로 부터 4cm 線上에 設定한다(이것은 印刷用目錄에서는 比較的 넓은 間격이라 하겠으나 基線の 明確한 區分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活字의 크기는 基本記入, 書名事項은 14pt 程度, 그外 版次, 出版事項, 對照事項, 註記, 請求番號等은 10pt 程度의 크기로 하였다.

III. 結 論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洋書의 基線에 依存해 오면서 아무런 再考없이 받아 들여져 使用되어 왔으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 基線設定이 不可避하다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基線의 設定은 다음과 같은 3가지 點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① 東洋書(日本, 中國)와 한글의 特殊性을 考慮하고 韓國의 大部分 圖書館目錄이 手書에 依存하고 있다는 點에서 手書者의 書體에 맞도록 流動的인 基線의 設定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洋書에서와 같이 Card의 左側 난간으로부터의 基線設定이 아니라, 난간으로부터 請求番號, 請求記號의 마지막에서 부터 第1基線, 第1基線에서 부터 第2基線의 간격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各事項과 基線間의 區別이 明確하도록 한다.

② 앞으로 發展될 目錄作成을 考慮해서 洋書와 같이 Typewriter(한글, 公판)나 Computer 等の 機械化를 爲한 固定式 基線을 設定하되 “Cm” 單位가 아닌 “Space” 單位에 依한 그러면서 東洋文字를 考慮해서, 보다 여유있는 Space를 基線의 基準으로 하므로써 使用되는 機械에 따른 容通성을 附與한다.

③ 植字印刷나 活字에 依한 組版印刷等を 考慮해서 基線을 “Cm” 單位로 固定하되 藏書의 大量化로 因한 請求番號의 複雜性을 考慮한 基線의 再調整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基線의 設定은 지금까지 使用되어 오는 “Space”나 “Cm” 單位에 依한 固定的인 概念에서 하나로 統一하여 쓸 것이 아니라 圖書館에서 使用되는 目錄作成의 手段에 맞도록 容通성있게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基線의 名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많은 圖書館에 依해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英語의 Indention을 아무런 具體的인 意味를 생각지않고 命名되어 오는 것을 우리 感情에 맞도록 우리것으로 名稱化해야 하겠다.

이상 本 考에서 論述한 것은 筆者가 나름대로 基線을 規定하고 試案으로 提示한 것들이다. 記述目錄의 發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發展될 機械化를 爲해 보다 具體的인 研究가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註로써 代身함

An Attempt for Establishing Indention (基線 : Kisun) on Drawing up Card Catalogue.

Kim, Nam-Seuk*

[Abstrac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ooks examination with utilizing science become inevitable to the machanization of library catalogues. With the advance of times, like this, a new development of Indention(基線 : Kisun) must be sought for which is a kind of descriptive catalogues being used now.

This paper is scheduled to grasp problems in the course of using and logical grounds of Indention which have been used disordering. It must be considered that four kinds of Indention settlement is suitable to the features of Korean letters.

1) We must consider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and Oriental Language writing(Japan, China). There must be a establishment of floating Indention(基線 : Kisun), which are suitable for the writting style or hand writting man on the point of most of Koreans are depend upon hand writting, then books catalogues like western language, not left edge of the cards of the Indention(基線 : Kisun) establishing, from edge to Call Number, from the last of the Call Number to First Indention(第一基線), First Indention(第一基線) to a space of Second Indention(第二基線) must be established and then, every catalogue and Indentions are distinguished surely.

2) When we consider the developing catalogue making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fixed Indention(基線 : Kisun) for machinization of typewriter(Korean, Mimeographing) and computer, etc... not "Cm" unit but "Space" unit, and consider oriental letter, we make more surplus space as a Indention, we can give an

* Director of Keimyung University Library

adaptability of using machines.

3) Considering typography printing and type-setting printing by printing type, we must fit the Indention(基線 : Kisun) as a "Cm" unit, and there must be a re-adjustment of Indention(基線 : Kisun) which considered the complexity of Call Number by a mass of collecting books like this, the establishment of Indention(基線 : Kisun). We must not use a unified one as a concrete conception by "Space" or "Cm" unit which has been used now but re-adjusted adaptably which can be fitted as a method of making of catalogues.

4) The name of Indention(基線 : Kisun) has been called various methods until now, but English Indention which has been used without any concrete meaning must be used as a ours fitable as a our mind. The above mentioned is presented as a Indention and examinational methods by myself style, I wants these will be helpful to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machanization of Indention(基線 : Kisun). Concrete studies mus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or development of Indention(基線 : Kisun).